

금남로 뒤덮은 현수막...답답한 광주 도심

인도·차도 가로막아 시야 차단
버스정류장 인근도 빼곡히 걸려
도로 내몰린 승객들 사고 우려
전교조 “시민 민원 미처 몰랐다”
내달 집회신고 끝나면 철거키로

‘문재인정부는 이명박근혜 계승받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원천무효! 청와대가 해결하라’

23일 둘러본 금남로 일대는 현수막(5m×1m)이 장악하고 있었다. 가로수와 가로등, 지하상가 계단 등을 가리지 않고 현수막이 일렬로 길게 설치돼 있었다. 현수막을 내건 단체들은 각기 달랐지만, 대부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를 비롯한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준), 김양무열사정신계사협회, 광주시 청년·청소년 노동인권개선만·관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현수막을 걸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했다.

문제는 현수막이 인도와 차도 사이를 가로 막으며 시야를 차단하고 있다는 데 있다. 중앙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일부 현수막은 같은 가로수 사이에 위 아래로 이중 설치되기도 했다. 전남여자고등학교 앞 정류장 인근에도 빼곡히 현수막이 걸려 있어 멀리서 오는 버스가 보이지 않았다. 일부 승객들은 도로까지 나가 버스가 도착하는 지 살펴보고 있어 안전이 우려됐다.

금남로 인근 사무실에 근무하는 김모(42)씨는 “그동안 금남로에 각종 현수막이 종종 걸리곤 했지만 이번처럼 장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설치된 경우는 처음 봤다”며 “도시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을 운전자가 사전에 알아채기도 어려워 사고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 중앙초등학교 앞 제봉로 주변으로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최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원에 100여개가 넘는 현수막이 걸리자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 김모(34)씨는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해 오히려 거슬린다”며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동구 5·18민주광장~금남공원·한미소풍사거리·장동교차로~5·18민주광장 구간에 집회(가두행진) 신고를 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현수막 130여개를 설치했다. 당초 167개를 설치

했지만 동구 장동로터라~동구청 구간에 걸린 현수막 30여개는 동구청이 불법 설치를 이유로 지난주 철거했다.

전교조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공약을 내세웠지만 취임 후 1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아 ‘현수막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장영인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처장은 “서울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광주에서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을 얻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전교조를 지원하는 지역 167개 시민사회단체가 각각 1개씩 현수막을 설치해 갯수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관을 해친다는 시민들의 민원은 미처 몰랐다”며 “집회신고가 끝나는 8월 12

일에 자진철거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구청도 현수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친 후 설치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돼 합부로 구청이 철거할 수 없다. 다만 집회신고는 전교조만 한 상황으로 동구청은 나머지 167개 단체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도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경찰 등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167개 단체가 현행법상 적용배제 대상이 되지 않으면 철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전교조 측과 밀접 설치된 현수막을 타 자치구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시험지 유출 학교 이사장 부인 참고인 소환 조사

경찰, 학운위원장 영향력 등 조사...이사장 부인 “나와 무관”

경찰이 ‘고3 시험지 유출’로 파문의 중심에 선 사립고교를 관할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인을 최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학교 행정실장과 함께 시험지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한 학부모(학교 운영위원장)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이사장 부인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기록이 발견되는 등 사건 관여 정황이 나타나자 경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23일 경찰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광

주서부경찰은 최근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인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학교운영위원장 B(여·51)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 및 B씨 휴대전화 통신기록 분석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학내에서 벌어졌던 지난 11일 이사장 부인 A씨와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기록

〈광주일보 2018년 7월 18일자 6면〉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이들이 광주 모 여고 동문으로 골프모임, 주식투자 등

을 하며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수사와 광주시교육청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되면서 경찰 참고인 조사가 접착됐었다.

경찰은 이사장 부인 A씨를 상대로 학운위원장 B씨와의 관계, B씨의 학교법인 및 교내 영향력, 시험지를 빼돌려 건넨 행정실장과의 관계 등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했고, A씨는 “학운위원장이 여고 후배여서 친목을 이유로 만나고 통화한 게 전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일보와 통화에서도 A씨는 시험지 유출 사건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학교 위상이 추락한 것은 죄송하다”면서 “저는 가정주부로

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사람일뿐 어떠한 형태든 학교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시험지 유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던 시기 둘이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대해서는 “당시 주변에서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 받으면 괜한 오해를 산다고 말렸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 하나 잘돼보자고 행정실장과 함께 그런 일을 벌였냐’고 통화를 통해 질책한 것일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와 행정실장, 여고 후배이자 문제를 일으킨 학운위원장과는 함께 만난 사실도, 둘 사이의 만남을 주선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불 나자 “컹컹”...주인 살린 개

말바우시장 횃집 주인 한밤 잠 깨 화재신고 후 진압

북부소방 ‘보이는 소화기’도 한몫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횃집을 운영하는 조모(62)씨는 지난 21일 새벽 0시20분께 자신의 개 ‘가을이’가 짖는 소리에 잠을 깬다. 조씨는 1층에서 횃집을 운영하고 2층에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었다.

평소 사람을 잘 따르고 순했던 ‘가을이’는 이날따라 이상하게 크게 짖고,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불안한 모습이었다. 조씨는 2년 전 강아지 때부터 진돗개 잡종견인 ‘가을이’를 키웠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의아했던 조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1층으로 내려가 식당 문을 열어봤고, 식당 내부에 가득 찬 연기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조씨는 즉시 119에 신고한 뒤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다.

해당 소화기는 지난해부터 북부소방

서가 말바우시장에 비치한 ‘보이는 소화기’였다. 북부소방서는 시장 내 전봇대 등에 사람 눈높이에 맞춰 소화기 456개를 설치했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북부소방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소방차 8대와 인원 32명을 출동시켰지만 조씨의 신속한 조치로 큰불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은 1층 수족관 배전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재산 피해는 8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씨는 “개가 짖지 않았더라면 불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개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고 ‘가을이’를 대견스러워했다.

당시 출동했던 민경상 현장상시지원2담당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화재가 진압됐었다”며 “조씨의 진돗개 덕분에 인명 피해와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2억대 보조금 횡령 전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집유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A(6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오랜 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횡령 금액이 많고 그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그 죄책(罪責)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사인하고 반성하

는 점, 횡령한 돈을 광주시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2~2016년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 공연 제작비로 지원된 광주시 보조금 2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극단 공연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나 제작진에게 출연금을 지급했다고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표 기자 lucky@

운전미숙 70대, 전남대병원 응급실 돌진...1명 경사

23일 오전 7시 55분께 A(76)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응급실 현관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환자를 이송하려고 현관 앞에서 대기하던 사설 구급차 운전자 B(40)씨가 차에 치였다. A씨와 B씨는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A씨가 들이받은 곳은 응급실 현관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과는 떨어져 있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혈액부석실에 가기위해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10대 머느리 친구인 여중생 성추행 ‘나쁜 어른’ 징역 1년



○...범인이 10대 머느리 친구인 여중생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에 따르면 김모(51)씨는 지난 3월 집앞에서 20대 아들과 함께 사는 머느리(15) 친구인 A양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성매매

까지 제안했다는 것.

○...송각영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행은 머느리 친구이자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 /박진표 기자 lucky@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④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 경매교육 ●
(7월부터 ~ 실전 전문)
★ 7월 개강 선택수 모집 ★

(주)대신경매

토지 기타 추천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 138평 건문 491평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로)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 A.P.T / 주택 |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4천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8평 건427평))
▶ 감평가 12억9천 → 최저가 7억2천

③ 서구 치명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④ 북구 용봉동 (2층상 6층)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⑤ 북구 양산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4백 → 최저가 4억4천4백

① 서구 병촌동 현대아파트 (40평)
▶ 감평가 29억 → 최저가 2억

② 광산구 수암지구 수암리채 (32평)
▶ 시세 8억 → 최저가 4억2천

③ 북구 운암동 현대아파트 (25평)
▶ 감평가 19억 → 최저가 19억2천

④ 칠전2지구 호반베르디움 (25평)
▶ 감평가 39억5천 → 최저 39억5천

⑤ 광산구 운남동 남영아파트 (24평)
▶ 감평가 19억6천 → 최저 19억6천

⑥ 광산구 월전동 (공장) 토1999평 건2,400평
▶ 감평 68억 → 최저 47억

⑦ 광산구 오산동 (공장) 토506평 건526평
▶ 감평가 12억 → 최저 9억8천

⑧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237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894천

⑨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10평 건176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946천

⑩ 남구 백운동 (빌라) 토65평 건145평
▶ 감평가 39억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함 (경매 직권,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